

부산 기장 고촌리 유적의 단계와 운영 양상 검토

홍 보 식*

| 목 차 |

- I. 머리말
- II. 유적 입지와 생산시설 구성 검토
- III. 고촌리 유적의 수공업 운영 특징과 변화 양상
- IV. 맺음말

| 국문초록 |

2회의 발굴조사 성과에 의하면, 고촌리 유적은 기원후 3세기 후반부터 마을을 이루고 본격적인 수공업 생산활동을 영위한 생산전문 집단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2회의 공백기를 제외하면, 삼국시대를 거쳐 통일신라와 고려 전기까지 목기·칠기·골각기·토기·유리·방직·기와 등의 수공업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고촌리 취락은 수공업품 생산에 적합한 자연환경이 갖춰진 지형을 선택하여 관련 시설과 완성품 보관 및 운송을 위한 창고시설과 도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수공업품생산과 저장·운송에 특화된 경관을 갖추었다. 연유도가·햇무리굽청자완 등의 고급 물품이 소비되었고, 초석이 있는 기와건물이 세워진 점 등을 고려하면, 고려 전기까지 수공업 생산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한 집단의 사회적 위상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니었다. 고촌리 유적을 통해 삼국부터 통일신라까지 수공업 생산을 전

*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 bosik-h@hanmail.net

문적으로 수행한 취락을 고려 전기에 특수행정 단위인 부곡으로 국가의 수취체제에 편재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사례로서 주목할 수 있었다.

주제어: 고촌리 유적, 수공업 생산, 창고시설, 도로, 부곡

I. 머리말

1990년대 이후 국토건설에 수반하여 대단위의 면적 발굴조사가 진행되었고, 수계 또는 분지 단위의 동시대 복합유적의 경관이 부분적으로 파악 가능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 검토하려는 유적이 위치한 기장 지역 역시 2000년대에 일정 공간을 대상으로 한 면적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기장 고촌리 유적, 동백리 유적, 청강-대라리 유적 등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 3개소 중 고촌리 유적은 기원후 3세기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산관계와 인간활동을 알려주는 공간과 시설들, 그리고 물품들이 상당 수 확인되었다.

고촌리 유적이 위치한 곳은 고려시기에 고촌부곡이 존재한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이기도 하다.¹⁾ 고려 시기 이곳을 부곡으로 편재한 것은 이미 그 이전부터 다양한 수공업품들을 생산한 곳이란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고촌리 유적의 성립과 시기별 운영 양상 등의 검토를 통해 수공업 생산 전문집단인 부곡 성립의 역사적 과정과 특징을 검토할 수 있는 유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를 밝히기 위한 선행 과정으로서 고촌리 유

1) 『新增東國輿地勝覽』 券23 慶尙道 機張縣.

(古跡) 古邑城 在今治東北五里土築周三千二百八尺 古村部曲 在縣西十里 結紮部曲 在縣西十里 沙良村部曲 在縣東五里 在縣東三里 今爲沙也村

적의 입지, 수공업 생산품 및 관련 시설의 종류와 특성을 검토하고, 유물의 상대서열 설정을 통해 각 시기별 수공업 생산의 특징을 검토한다. 이러한 작업은 단위 유적을 통해 해당 집단의 성격 파악은 물론 주변 집단과의 관계, 특히 단위지역에서 수장층의 존재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하위집단의 존재 모습과 변화의 방향을 파악하여 지역사 해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 구축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유적 입지와 생산시설 구성 검토

1. 유적 입지

기장 고촌리 유적은 수영천의 지류 소하천인 안평천 상류에 위치한다. 안평천변에는 넓지 않은 충적지가 형성되었고, 그 주위에 구릉성 산지가 펼쳐져 있다. 유적은 일광산에서 발원하여 남서쪽으로 흐르는 안평천에 실개천인 고촌천이 합류하는 지점인 북쪽 구릉 말단부와 독립구릉에 형성되었다. 위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동쪽의 해발 114m의 구릉과 서쪽의 해발 100m의 독립 구릉 사이의 너비 100m 채 안되는 곡간부가 남북으로 형성되었고, 그곳에 작은 개울이 북쪽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다가 유적이 위치한 곳에서 서쪽으로 꺾여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안평천에 합류한다. 안평천은 안평리 일대에서 시작되어 서쪽으로 고촌리 유적을 지나 수영천에 합류된다. 안평천 주위에는 좁은 곡간부가 형성되어 있어 거점세력의 활동 무대를 조성할 수 있는 큰 규모의 마을이 입지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고촌천이 안평천에 합류한 지점으로부터 서쪽으로 200m가량 이격된 곳에 남북방향으로 이어진 해발 115m 구릉 정상부와 경사면 일대에 고촌리 고분군이 위치한다.

지금까지 조사된 범위에서 일상적인 주거 시설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주거 공간은 현재까지 조사된 범위 밖에 위치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공간은 고촌천 북쪽인 현재 고촌마을이 위치한 곳 또는 유적 서북 쪽의 독립 구릉 일대였을 가능성이 있다.

고촌리 유적이 소재한 이곳은 사방으로 해발 200m 이상의 산으로 둘러싸였고, 진출입의 주공간은 서쪽으로 흘러 수영강에 유입되는 안평천 변이다. 안평천이 수영강에 합류되는 지점은 과거 바닷물이 들어온 곳 으로서 고촌리 유적이 위치한 곳은 해안을 통해 나아가기 용이한 지점 이기도 하다. 고촌리 유적은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기에 이르기까지 부산의 중심이자 지배세력 또는 행정관청이 위치했던 동래지역(동래읍 성)과는 불과 직선거리로 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2. 생산시설 구성 검토²⁾

1) 구분 기준

고촌리 유적은 경남문화재연구원(2010)과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0)의 2개 기관에서 조사를 하였다. 경남문화재연구원 조사 구역은 고촌마을의 남쪽에서 동서로 관통하는 반송로 사이의 남북 구간이 해당 된다.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 구역은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 한 남쪽 구간의 서쪽 일대, 즉 반송로의 북편 일부가 해당된다. 고촌마을 남서쪽인 현재 거남공원이 위치한 해발 100m의 독립 구릉 남쪽 사면 과 구 안평천 사이 구간이다. 이 구간은 구릉 남서쪽의 말단부 저평한 곳인 가지구와 안평천의 습지 일대의 나지구로 구분되었다. 경남문화재 연구원의 조사 구간은 북쪽의 동쪽과 서쪽을 각각 A지구와 B지구,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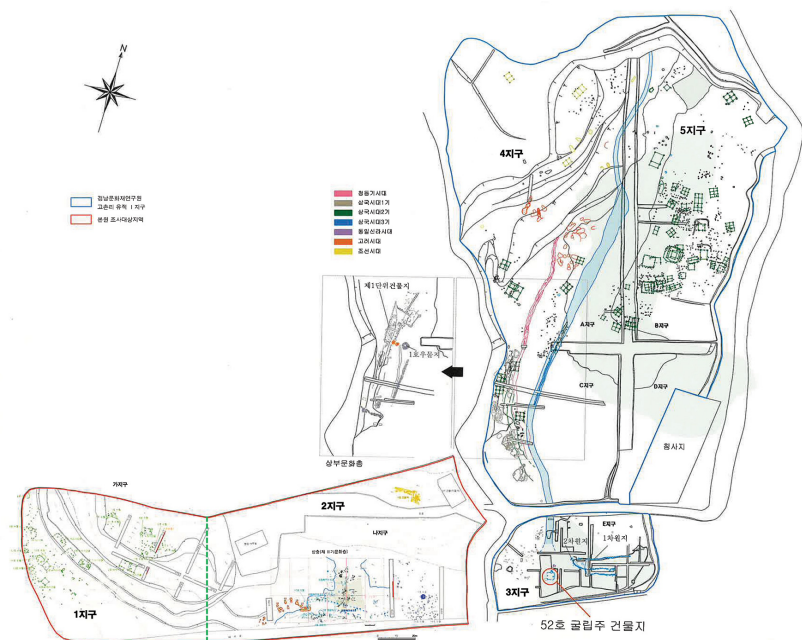
2) 2개 기관에서 조사된 고촌리 유적의 전체적인 양상 및 생산시설의 분포와 개별 유구·유물 구성의 특징을 검토하여 고촌리 유적의 성격을 구체화 한다.

남쪽을 C지구와 D지구로, D지구 남쪽의 소로를 경계로 그 남쪽을 E지구로 구분하였으나 이는 발굴조사의 편의상 나눈 구분이다. 경남문화재연구원 조사 구간은 발굴조사 시 확인된 북에서 남으로 이어진 자갈 다짐 도로를 경계로 동쪽의 굴립주건물지군과 서쪽의 부정형수혈·구상유구·도로·굴립주건물지·건물지와 관련된 유구들(통일신라 보도·축대·건물지·우물·석열)·통일신라 기와가마, 고려 기와가마 등이 위치한 구간, 고촌천이 안평천에 합류하는 곳인 남쪽의 연지와 추정 배수로, 굴립주건물지가 위치한 구간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당시의 지형과 유구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부합한다.

본고에서는 유적이 형성된 당시의 지형과 유구들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섯 지구로 구분한다. 조사된 구역의 서쪽에 위치하며, 현 거남공원이 위치한 해발 100m 높이의 구릉 남서사면 끝자락에 위치한 건물지로 이루어진 1지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의 가지구에 해당), 그 동쪽인 안평천의 자연유수지에 조성된 2지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의 나지구에 해당), 2지구 동측인 자갈 다짐 도로의 남쪽 끝 지점 가까이의 3지구(경남문화재연구원의 E지구에 해당), 자갈 부석 도로 서측의 4지구, 동측의 굴립주건물지로 이루어진 5지구이다(그림 1 참조). 위에서 구분한 다섯 지구의 유구 구성과 특징을 개략적으로 검토한다.

2) 1지구

1지구는 해발 등고를 따라 수혈·지상식건물지·굴립주건물지와 작은 기둥구멍들로 이루어졌다. 수혈은 모두 13기 확인되었는데, 평면형태가 말각(장)방형인 것(1·11호 수혈)과 원형·장방형·부정형으로 크기가 작은 것(2~10·12·13호 수혈)으로 나뉜다. 1호 수혈이 3호 수혈을 일부 파괴하였고, 11호 수혈이 10호 수혈을 파괴하였다. 중복관계로 볼 때, 말각(장)방형 수혈이 부정형 수혈보다 늦게 조성되었다. 이 1지구에서



〈그림 1〉 고촌리 유적 지구 구분과 유구 분포도

확인된 수혈들은 조사 구역 가장자리에서도 확인되어 유사한 유구들이 조사 구역 범위 밖의 서쪽과 북쪽에 더 분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식 건물지는 해발 57.0m~59.0m 사이에 4기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1·2호), 방형(4호), 말각타원형(3호)으로 구분된다. 4동 모두 1칸이며, 4주식이다.

3) 2지구

2지구는 1지구로부터 동쪽으로 50m 정도 이격된 안평천의 습지가 형성된 곳과 그 주변일대이다. 이 2지구는 반송에서 기장으로 이어지는 반송로에 의해 도로 밖의 북쪽 일부만 조사되었다. 이 2지구의 대부분

은 안평천의 자연 유수지 내부로써 흑갈색 점질토의 범람지이다. 범람지 내부와 주위에서 대·소형 목주 유구, 작업지·공방지·혼토판각층·소성유구군 등이 확인되었다. 2지구에서 확인된 유구들은 하층의 I기 문화층과 II기 문화층으로 구분된다(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 2010, 97쪽).

I기 문화층에서 확인된 유구로는 혼토판각층, 남북으로 긴 부정형의 작업지와 내부의 대·소형 목주 유구, 소성 유구 6기이다. 혼토판각층은 습지 서쪽에 위치하며, 안평천 쪽으로 퇴적되었다. 범위는 동-서 약 13m, 남-북 7m, 두께 30cm로 평면적이 좁고, 층의 두께도 얇으며, 출토 유물에서도 시기 차이가 확인되지 않아 비교적 단기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질옹·노형토기·녹각도자병·골촉·골각기 등이 출토되었다.

작업지는 2지구 습지 중앙의 곡간부 전면에 걸쳐 넓게 형성되어 있으며, 규모는 동-서 5~10m, 남-북 30m로 부정형이다. 자연 요철면의 바닥은 5cm 내외의 두께로 사질점토와 자갈돌을 깔아 정지하였다. 작업지에서는 도끼자루·안 부속구·팽이·쌍날따비·건축부재 등과 용도미상의 미완성품들 등 다량의 목기가 확인되었다. 골각기로는 녹각제의 소도자 완성품도 일부 있으나 미완성 상태의 녹각도자병이 다수이다. 골촉·골침·각골·복골 등이 다수 출토되었고, 1차 가공한 상태의 사슴 견갑골도 다수 출토되었다. 동물유체로는 사슴과 멧돼지의 두개골이 출토되었다. 와질노형토기·단경호, 연질의 파수부완·연질옹 등이 출토되었다.

작업지 내의 북쪽에 대·소형 목주 유구가 확인되었다. 대형 목주 유구는 남-북 방향으로 13m 정도 확인되었다. 이 대형 목주열의 기능을 추정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작업 공간 또는 재료를 구분한 경계시설이거나 습지에 수침된 물품들이 썩이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소형 목주 유구는 대형 목주열의 북쪽,

즉 습지 가장자리에 위치하며, 열상으로 배치되었지만, 형태가 정형적이지 않다.

소성유구는 습지의 동쪽과 서쪽 사면에 위치하며, 모두 6기 확인되었다. 사면 동쪽에 5기, 서쪽에 1기 배치되었다. 소성유구는 길이 1m 내외, 너비 70~80cm, 깊이 10~50cm이다. 바닥은 목탄이 있고, 그 위에 소토가 부분적으로 쌓였고, 일부분에만 피열흔이 확인된다. 내부에는 붓돌이 있고, 일부 소성유구 내부에는 연질옹이 출토되었다. 이 소성유구는 물가에 여러 기가 나란하게 배치되었고, 바닥이나 측면의 지면이 부분적으로만 피열되어 고온에 의한 소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부에 붓돌이 설치되었고, 연질옹이 출토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저온에서 액체를 끓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소성유구는 습기가 많은 저습지변에서 정제철을 만들기 위해 철을 끓이는 시설로 추정되었다(홍보식 2019, 232~233쪽).³⁾

상층의 II기 문화층에는 흑갈색계의 사질점토에 다량의 유기질 부식흔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습지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 수피·패각류와 함께 마사 성분의 사질점토를 이용하여 범람층 상부를 매립하였음을 나타낸다. 매립된 흑갈색 사질점토층에는 뚜껑·2단투창고배·무투창고배·광구소호·대호·노형토기·통형기대·양이부호 등과 하지키계 토기 등의 토기편과 칠기류·각종 골각기 및 목기류가 다량 출토되었다. 인위적인 성토층 면에는 소형 목주 유구 2기, 대형 목주 유구 1기, 공방지 2기, 소형 소성 유구 12기가 확인되었다. 습지 동측에는 우물 1기와 수혈 3기, 다수의 기둥구멍들이 확인되었다.

대형 목주유구2는 저습지 중앙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북동에서 남-서

3) 전고(홍보식 2019)에서 이 유구들을 칠 끓이는 소성유구로 추정하면서 일부 연질옹에 보이는 흐른 흔적을 끓여서 넘쳐흐른 것으로 서술하였는데, 이는 잘못 파악한 내용이다. 칠은 저화도에서 끓이면서 수분을 증발시켜 정제철을 만든다. 연질옹 표면에 묻은 칠액은 칠을 담거나 옮길 때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방향으로 길이 17m 정도 확인되었다. 목주는 대칭되게 2열이 설치되었고, 각 목주들은 240~300cm 정도의 일정 간격을 이룬다. 대형 목주유구 3은 습지 폭이 넓어지는 곳에 동-서 방향으로 2열이 확인되었다. 북쪽 열과 남쪽 열간의 간격은 3.5m~4.0m이다.

소형 목주유구2는 습지 중앙부를 관통하여 남-북 방향으로 열을 이루는데, 길이는 20m이다. 소형 목주유구3은 동서 방향으로 가로지른 대형 목주유구3에서 남쪽으로 6.5m 가량 떨어진 곳에서 동-서 방향으로 향한다. 확인된 목주열의 길이는 20m 가량이다. 이 소형 목주유구2·3은 목주열이 여러 갈래를 이루고 있어 앞의 소형 목주유구2와 동일하게 같은 공간에 반복해서 설치되었거나 보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목주유구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형 목주열과 직교되게 소형 목주열이 설치된 점, 그리고 소성유구와 공방지 등이 배치된 점들을 고려하면, II기의 목주유구들은 작업장 내의 공간을 구분하고, 작업장 내의 물품들을 보호하는 기능의 시설일 가능성이 있다.

공방지는 소형 목주 유구 가까이 2기가 남북방향으로 배치되었다. 1호 공방지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292cm, 너비 240cm, 깊이 22cm이다. 공방지 내부 북쪽과 남동쪽에서 수피를 벗겼거나 끝단을 사선으로 가공한 형태의 소형 목주로 추정되는 가공목과 소형 목주 미완성품이 확인되었고, 내부 퇴적토에서 수피 및 목재 잔편이 다량 포함됨 것으로 보아 목기 제작 공방지로 추정된다.

2호 공방지는 1호 공방지로부터 남쪽으로 2.5m 떨어져 위치한다. 남쪽은 국도 14호선으로 일부가 조사되지 않았다. 잔존 유구 규모는 길이 270cm, 너비 225cm, 깊이 48cm이고,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공방지 상부에서부터 수피 잔편이 다량 확인되었고, 내부에는 목탄 또는 수피·목제 부식흔이 포함된 층으로 이루어졌다. 내부에서 목제 바가지·용기 미완

성품·목재 작업대와 박 바가지가 확인되었다. 수피를 벗기거나 선단부를 사선으로 가공한 목재가 다수 확인되었다. 내부에서 목재 작업대, 용기 미완성품, 가공 중의 목재와 수피, 목재 부식편이 확인되어 목기 제작 공방지로 추정된다.

소성 유구는 습지 서쪽 구릉 사면부의 해발 57.5m~58.5m 사이에 위치하며, 한 곳에 몰려 있다. 소성 유구의 장축은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며, 모두 12기 확인되었다. 12기중 10기는 앞서 설명한 I 기 문화층에서 확인된 소성 유구와 동일하다. 10·11·14·15·17호 소성 유구에서 연질옹(편)이 출토되었다.

16호 소성 유구는 동쪽을 제외하고 굴광을 따라 할석을 세웠는데, 할석이 없는 곳은 굴광선이 튀어나와 이곳이 아궁이임을 나타낸다. 규모는 길이 184cm, 너비 147cm, 깊이 28cm이다. 할석을 돌린 평면형태가 ‘八’자형이고, 바닥에 소결토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야외 부뚜막을 만들고 그 위에 자비기를 올려 고온으로 자비하는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활동과 관련된 음식물 조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18호 소성유구는 습지에서 구릉으로 이어진 부위에 위치하며, 규모는 잔존 길이 576cm, 너비 204cm, 깊이 18cm로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에 가깝다. 유구 바닥면에서 삼태기로 추정되는 유기물 위에 탄화된 콩과 조 등의 곡물이 집중되어 다량 확인되었다. 이 유구는 콩과 조 등의 곡물을 임시 또는 단기간 보관한 시설로 추정된다.

4) 3지구

3지구는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 구역의 동쪽에 해당하는 안평천의 가장자리를 성토하여 조성된 대지층에 우물 및 수혈과 다수의 기둥구멍들이 분포한 곳과 자갈 다짐 도로의 남쪽 끝 가까이의 경남문화

재연구원의 E지구가 해당한다. 이 3지구에는 원지와 52호 굴립주건물지, 우물, 다량의 기둥구멍, 추정 배수로와 그 하부의 습지 등이 확인되었다.

습지는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치고, 내부 층에서 많은 수량의 목재와 목기들이 확인되었다. 목재와 목기는 습지 전체에서 확인되지만, 특히 추정 배수로 북쪽과 동쪽에 집중되었다. 습지에는 외절구연고배·도질 소문원저단경호·통형고배·통형기대·발형기대·우각형파수부옹·시루 등의 토기들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목재 용기·안 부속구·미완성 또는 실패 목기, 제작중의 파비와 건축부재 등의 목기와 목재들이 다수 출토되었다. 이곳에서 출토된 토기들과 이 위층에서 출토된 토기들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이 습지는 2지구의 II기 문화층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원지는 습지를 메워 대지를 만들어 조성하였는데, 1차와 2차로 구분된다. 1차 원지는 동쪽이 유실되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잔존 규모는 동서 25.8m, 가장 넓은 곳의 너비가 9.7m, 평면적은 251㎡(76평)이다. 연지 내부에서는 뚜껑·고배·대부완·완·합 등의 토기와 압키와, 식물유체(과육·씨앗류·나뭇잎)가 출토되었다. 2차 원지는 1차 원지의 북쪽 호안석축을 재사용하면서 서쪽으로 길게 돌출시키고, 너비는 1차 원지보다 좁게 하여 전체 평면형태가 장주형에 가깝다. 잔존 규모는 동서 32.3m, 남북 6.2m, 평면적은 200㎡(61평)이다. 내부 바닥에서 뚜껑·고배·완·연질옹 등의 토기와 평기와 편 등이 출토되었다.

추정 배수로는 1·2차 원지 아래인 남쪽에 위치해 있다. 유구는 동서 방향으로 석축이 있고, 석축 중앙부에 남-북 방향으로 너비 20cm, 깊이 70~80cm 정도의 수로가 조성되었다. 정확한 기능은 알 수 없지만, 북쪽으로 7m 가량 떨어진 지대가 높은 곳에 원지가 위치해 있어 원지의 배수구일 가능성이 있다. 배수로 일대에서는 앞서 설명한 1·2차 원지 바닥

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시기의 토기들이 다수 출토되어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52호 굴립주건물지는 2차 원지의 서쪽 끝에서 서쪽 방향으로 15m 떨어진 곳에 독립되어 있다. 이 52호 건물지가 세워진 층이 원지 조성층과 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지와 관계있는 건물지, 즉 원지를 조망하는 누각일 가능성이 있다.

3지구에는 3기의 우물이 확인되었다. 경남문화재연구원 조사의 E구간에 2기,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의 나지구 동쪽 끝 지점의 1기이다. 2차 원지 내부 4호 우물은 2차 원지보다 낮고, 내부에서 지그재그점열의 인화문 합이 출토되었다. 원지 북동쪽에 위치한 우물 5호는 직경이 210cm이고, 현존 깊이가 245cm이다. 내부에서 연질옹·완 등과 씨앗류가 출토되었다.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 나지구에서 확인된 1호 우물은 석축 우물로서 단면 형태가 상협하광형이다. 내부에서 연속마제형의 인화문 합·고배·뚜껑·완 등의 토기류와 소형 도가니, 방망이와 목도 등의 목기, 씨앗류가 출토되었다.

수혈은 1호 우물 남쪽에 3기(18~20호)가 확인되었다. 3기 모두 평면 형태가 부정형이고, 규모는 길이 200cm 내외, 너비 130cm 내외이고, 잔존 깊이는 10cm 내외이다. 내부에는 목탄·소토·부식토가 채워졌다.

52호 굴립주건물지와 연지·추정 배수로, 우물 등의 주변에는 많은 수의 기둥구멍들이 분포되었는데, 정형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곳 일대가 위의 유구들이 설치되기 전에는 안평천 또는 고촌천이 안평천에 합수되는 곳의 습지로 지반이 약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약지반을 대상으로 대지를 성토하면서 목익(木枳)을 심어 지반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된다.⁴⁾ 습지를 메워 대지를 확장하면서 지반을 강화한 토목

4) 연약지반을 강화하여 지반을 단단하게 하는 전통적인 토목공법의 하나로 목익을 심어

공법이 적용되었음을 나타낸다.

5) 4지구

4지구는 자갈 다짐 도로의 서쪽 일대이며, 수혈·구상유구·굴립주건물지·우물·도로·건물지·축대·석열·보도·담장 등이 확인되었다. 건물지·축대·석열·보도·담장 등의 유구들은 수혈·구상유구·굴립주건물지 위에 위치하여 조성에 시차가 있다.

고촌천 하류의 서편 대지 하층에는 구상유구 및 평면형태가 부정형인 수혈이 다수 확인되었다. 수혈은 서쪽 사면의 점질토 대지를 부정형으로 굴착하였는데, 선행 굴착한 수혈의 일부에 잇대어 연속해서 굴착한 형태이며, 바닥도 요철이 있다. 위의 수혈들은 구상 유구에 의해 일부 또는 많은 부분이 파괴되어 구상 유구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수혈 내부에서는 토기 편·방추차·유리범·원형토판·토기 내박자 등이 출토되었다.

4지구에서 확인된 수혈들은 평면형태가 부정형일 뿐만 아니라 큰 수혈 내부에 소형 수혈이 연속적으로 굴착된 점,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혈 내부토가 단일층이고 풍화암반편이 많이 혼입된 점 등이 특징이다. 그리고 내부에서 토기 파편들과 함께 목탄 알갱이가 혼입된 점도 특징이다. 각 수혈군에서 출토된 토기들의 기종과 특징들에서 시기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 같은 시기에 집중 형성되었음을 나타낸다. 특히 수혈 6호에서는 토제 내박자가 1점 출토되었다. 그리고 수혈 3호에서는 원형 유리구슬의 틀이 출토되었다.

수혈 내부 흙의 구성과 출토 유물이 대부분 토기편인 점, 수혈 6호에서 토기 내박자가 출토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수혈군은 토기 생산에 필요한 바탕흙을 획득하기 위한 채토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채토를 위해 굴착한 후, 사용하기 어려운 풍화암반편을 버리거나 생활 쓰레기

흙의 밀도를 높이는 것이다.

들을 버려 메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4지구에서 확인된 굴립주건물지들은 10기이다.⁵⁾ 굴립주건물지들은 서쪽 구릉에서 곡부로 이어진 사면을 따라 분포되었다. 굴립주건물지의 평면형태는 방형과 장방형이 있고, 규모는 1칸(50호), 2×2칸(47호), 2칸(42~46·48·49·51호) 등이다. 4지구의 굴립주건물지들은 자갈 포장 도로의 동측인 5지구에 분포한 굴립주건물지들과 구조와 규모에서 유사하다.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구상 유구는 2기 확인되었다. 1호는 자갈로 포장된 도로의 서쪽인 구릉 말단부와 곡부 사이에 남·북으로 길게 조성되었으며, 청동기시대 구상 유구와 삼국시대 수혈 유구를 부분적으로 파괴하면서 설치되었다. 조사에서 확인된 길이는 53.4m, 너비 1.0~3.2m, 현존 깊이 0.7m이다. 유구 내부 구성물은 상층의 사질점토와 하층의 굵은 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졌고, 많은 수량의 토기 편들이 혼입되었다. 이 구상 유구는 구릉 사면과 곡부 사이에 길게 남북으로 이어지고, 바닥 폭이 꽤 넓고, 단면이 ‘U’자 모양이나 부분적으로 ‘L’자 모양이고, 하부에 자갈들이 많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하면, 도로 유구일 가능성이 있다.

구상 유구 2는 자갈 다짐된 도로 하부에 남·북으로 길게 조성되었으며, 1호 구상 유구와는 축 방향이 같으나 연결되지 않는다. 규모는 현존 길이 34.1m, 너비 0.8~1.0m, 깊이 0.3~0.7m이다. 단면은 ‘U’자 모양 또는 ‘Y’자 모양이 불규칙하게 나타난다. 내부에서 많은 수량의 토기편들이 출토되었다.

이 구상 유구는 보고서에 자갈 다짐된 도로의 측구일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경남문화재연구원 2010, 183쪽), 자갈 다짐된 도로는 구상 유구 내부가 퇴적된 후에 조성되었고, 구상 유구 출토 토기는 자갈 다짐된

5) 보고서에는 10기 모두 A 지구에 위치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42~44·46·47호만 A 지구에 분포하고, 45·48~51호는 C 지구에 분포한다.

도로 노면에서 출토된 토기와 시기 차이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측구로 보기 어렵다. 구상 유구 1호보다 폭이 좁고, 단면이 ‘U’자 모양 또는 ‘Y’자 모양으로 다소 구조가 다르지만, 최근 다른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구상 유구가 도로일 가능성이 제시된 점(李畎燮 2016, 163~164쪽)을 고려하면, 도로일 가능성이 있다. 1호 구상 유구와 연결되지 않고, 내부 출토 토기에서 시기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의 도로일 가능성이 있다.

자갈 다짐 도로는 4지구와 5지구 사이의 구릉 말단부와 3지구의 습지를 관통한다. 확인된 총 길이는 300m 이상이고, 노폭은 2.2m~6m이다. 노면은 10cm 내외의 할석을 채워 포장하였고, 너비 70cm의 차륜흔이 남아 있다. 도로의 일부 구간은 통일신라시대의 담장 석열 상부에 조성되었고, 도로 하부에 굴립주건물지가 조성되었다. 도로가 ‘C’자 모양을 이루는 남쪽에는 1cm 내외의 잔자갈을 폭 2~2.5m로 평평하게 깔아 노면을 조성하였고, 서쪽 가장자리에 돌로 만든 측구가 설치되었다. 도로의 남쪽 끝 부분은 4지구의 52호 굴립주건물지 가까이까지 이어졌다. 이 부분의 노면은 도로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하부에 긴 자연목을 도로와 같은 방향으로 놓아 조성하였다. 전체적인 도로 너비는 동일하지 않고 편차가 있는데, 도로 폐기 이후 부등질적인 훼손이 되어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노면에서 많은 수량의 토기편들이 출토되었다. 고배·뚜껑·대부완·편구병·합·부가구연장경호·완 등과 평기와도 출토되었다. 토기에는 찍원 반원점문·찍은 삼각집선문+이중원문·연속마제형문·수적형문·일조직선의 점열문·지그재그점열문·연주문·초문·국화문 등 다양한데, 대부분 인화문들이다.

부정형 수혈군과 1·2호 구상 유구, 40~51호 굴립주건물지가 위치한 상층에서 확인된 유구로는 건물지 2기, 축대 2기와 석열 3기, 담장·보도·우물 등이 있다. 건물지 1호는 평면형태가 남북으로 긴 장방형이고, 동향이다. 기단석열은 동쪽과 남쪽에 유존하며, 이를 기준했을 때, 규모

는 장축 8.8m, 단축 6.1m이고, 면적은 53.6㎡(약 16평)이다. 동쪽의 남편 모서리에 출입시설을 두었고, 내부에는 기둥구멍만 확인되었다. 내부와 주변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뚜껑·호·연질완·연질옹·주름무늬병·장동병·파수부옹 등의 토기류와 방추차·연화문수막새·암기와 등이 있다.

건물지 2호는 1호 건물지의 서남측에 위치하며, 동편과 서편 일부에 기단석열이 유존한다. 기단석열의 규모는 장축 9.2m, 단축 5.4m이고, 평면형태가 장방형이고, 동측 석열 내측에 일정 간격으로 3곳에 적심부가 배치되었다. 기단토 내부와 주변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뚜껑·연질옹·병·주름무늬병·완·어망추 등이다.

축대 1은 1·2호 건물지의 뒤쪽 서측에 남북방향으로 길이 23.8m 유존한다. 축대는 할석을 사용하여 동쪽에 면을 맞추어 허튼층쌓기 하였고, 유존 상태가 가장 양호한 곳의 높이는 5단 60cm이다. 축대 2는 할석과 천석을 사용하여 동쪽에 면을 맞추어 허튼층쌓기 하였다. 유존 길이는 13.4m이고, 양호한 부분은 최대 7단, 80cm 유존한다. 남측에는 축대와 연결된 석축시설이 있는데, 출입시설일 가능성이 있다.

보도는 담장으로 추정되는 석열 서측에 남북방향으로 진행되다 건물지 2호 쪽으로 굴절된다. 유존 규모는 길이 31m, 너비 40~110cm이고, 지면을 ‘ㄷ’자 모양으로 파 내고, 내부에 자갈을 채웠는데, 두께가 20cm 내외이다. 자갈층 내부에서 고배·뚜껑·합·편구병·주름무늬병·벼루 다리·연화문수막새·평기와 등이 출토되었다. 평기와 1점에는 “大寺”명이 있다. 보도 동측에 위치한 담장 석열은 진행방향이 남북이며, 유존길이는 28.6m, 너비 1.2m이다.

우물(통일신라시대 1호)은 2호 건물지 동측에 위치하며, 고촌리 유적에서 확인된 우물중 규모가 가장 크다. 우물의 동남측 가장자리를 따라 천석이 둥글게 놓여 있다. 우물과 원형 석축 사이에는 할석과 천석, 자갈을 채워 넣었다. 내부에서 4면편호·옹 구연부편·격자타날 암기와 편

등이 출토되었다.

축대와 석열이 조성된 구간의 위쪽에서 기와가마 2기가 확인되었다. 기와가마 2기는 인근에 위치해 있고, 내부 출토 기와의 문양이 같고, 모두 “大寺”명이 확인되어 동시에 조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삼가마는 2호 건물지의 남측에 위치하며, 2기가 동서로 배치되었다. 1호는 동서로 긴 타원형이고, 2호는 남북으로 긴 타원형이다. 1·2호 삼가마 내부에서 햇무리굽청자완 편들과 기와가 출토되었다.

4지구 북쪽, 청동기시대 구상 유구가 지나가는 북쪽 일대에서 부정형 수혈과 기와가마, 수혈건물지가 확인되었다. 부정형 수혈은 확인된 수가 22기이다.⁶⁾ 수혈 규모는 길이가 긴 것은 600cm, 짧은 것은 100cm 내외이고, 깊이는 60~70cm이다. 평면형태는 원형 또는 2~3기의 원형이 연결된 것, 부정형 수혈 끝에 원형 수혈이 연결된 것 등 다양하다. 내부에서 토기·기와·도기·자기 등이 출토된 것과 유물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 있다. 수혈 13·15·21·22호에서 출토된 유물은 통일신라 토기의 특징을 보인다.⁷⁾ 그 외에 유물이 출토된 수혈은 도기·자기·기와 등이 출토되었다.

수혈건물지는 부분적으로만 잔존하며,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다. 남서쪽에 할석을 세워 만든 부뚜막이 위치하고, 부뚜막 내부 바닥은 소결되었다. 내부에서 토기와 햇무리굽청자완이 출토되었다.

앞의 “大寺”명 암키와가 출토된 기와가마 외에 앞서 설명한 부정형 수혈이 위치한 곳의 서쪽 구릉 사면에서 또다른 5기의 기와가마가 확인되었다. 기와가마는 대부분 파괴되었는데, 잔존 양상을 볼 때, 반지하식 등요이다. 1호 가마 위에 2호 가마가 조성된 점을 고려하면, 5기의 가마

6) 보고서에 고려시대 수혈로 보고된 유구가 해당된다.

7) 보고자는 22기 모두를 고려시대로 보고하였으나 통일신라기의 것들도 존재한다. 통일신라 말~고려 초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

가 시차를 두고 조업된 것으로 보인다. 5기의 가마는 바닥에 기와를 깔았는데, 이곳에서 확인된 기와는 모두 평기와이다. 평기와의 타날판은 장판이고, 문양은 사선문과 중선문으로 구성된 복합문이 대부분이며, 5기의 가마에서 모두 “畵”자명 기와가 확인되었고, 5호 가마에서는 “長樂無殃”명문이 확인되었다.

6) 5지구

5지구는 자갈다짐 도로 동편 일대가 해당한다. 이곳에 40여기의 굴립주건물지가 밀집 분포한다. 이곳 일대에는 기둥구멍들이 정연하게 배치되어 평면형태를 알 수 있는 40여기 외에도 다수의 기둥구멍들이 확인되어 실재는 이보다 훨씬 많은 건물지들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굴립주건물지 이외의 유구로는 우물 4기와 구상유구 1기(보고서의 3호)가 확인되었다.

굴립주건물지들은 일부 중복된 사례가 있는데, 이는 40여기의 굴립주건물지들이 시차를 두면서 세워졌음을 나타낸다. 굴립주건물지들은 6주·8주·9주·12주 등 형식과 규모가 다양하다. 굴립주의 기둥 배치와 크기에는 차이가 있다. 5지구에 분포한 건물지들은 평면형태, 칸의 수와 배치형태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칸의 크기도 다양하다. 이는 개별 건물지들의 기능이 다양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물 4기(보고서의 삼국시대 우물 2·3·4호와 통일신라시대 우물 3호)는 건물지군의 동쪽 끝자락에 분포하며, 1기씩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배치되었다. 우물은 석축이며, 석축 내면의 평면형태는 원형 또는 타원형이고, 할석과 냇돌 등을 섞어 바른층쌓기 또는 허튼층쌓기 하였다. 우물의 현존 깊이는 70~206cm이고, 너비는 45cm~91cm이다.

5지구의 북동쪽 끝에 위치한 구상 유구 3호는 장축이 남북방향이고, 잔존 길이가 27.5m, 너비는 80~250cm, 잔존 깊이는 10cm~76cm이다.

단면은 ‘U’ 또는 ‘Y’자 모양이며, 자연곡부로 보고되었다. 그런데 이 구상 유구 내부의 양측 가장자리에는 목주가 일정간격으로 세워져 있고, 내부토 위층에 나무의 잔가지가 깔려 있고, 또 내부에서 많은 수량의 토기들이 출토되어 자연구로 보기 어렵다. 곡부 내부에서 출토된 토기는 상하엇갈림 장방형 투창이 있는 고배와 즐묘열점문이 시문된 뚜껑, 대부완 등 5세기 말의 것과 7세기 전반 이후의 것들이 확인된다. 5세기 말의 토기는 수가 적지만 7세기 전반 이후의 토기들은 수가 꽤 많다. 5세기 말의 토기들은 주변에 있는 것이 쓸려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지만, 7세기 전반 이후의 토기들은 사용도중에 들어갔을 개연성이 있다.

이상 고촌유적에서 조사된 내용을 다섯 지구로 구분해서 각 지구에서 확인된 유구의 특징들과 유물 출토 현황과 특징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 차장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각 지구의 유구의 구성과 특징·성격, 그리고 토기와 기와의 특징들을 분석해서 고촌리 유적의 수공업 운영의 시기별 특징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Ⅲ. 고촌리 유적의 수공업 운영 특징과 변화 양상

1. 단계 구분

여기서의 단계 구분은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층서와 출토 유물의 개략적인 특징을 근거로 선행의 편년 성과(안재호 1994, 63~82쪽; 이성주 1999, 15~38쪽; 김보숙 2010, 473~476쪽; 홍보식 2003, 81~110쪽; 2014, 216~219쪽, 홍보식 외 2019, 51~55쪽)를 인용하여 설정한다.

발굴조사에서 2지구는 삼국시대의 하층 I기와 상층의 II기로 구분되었다. 각각의 층에서 출토된 토기 기종중 연질옹은 형식 구분이 명확

하지 않아 단계를 구분하기 어렵지만, I 층에서 출토된 토기에는 도질 토기가 확인되지 않았고,⁸⁾ II 층에서 수습된 토기에는 많은 수량의 도질 토기들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5세기의 특징이 있는 토기들도 포함되어 있어 토기 구성에 차이가 있다. 5세기의 토기가 수습품에 포함되어 있음은 이 상층의 지표면이 5세기에도 사용되었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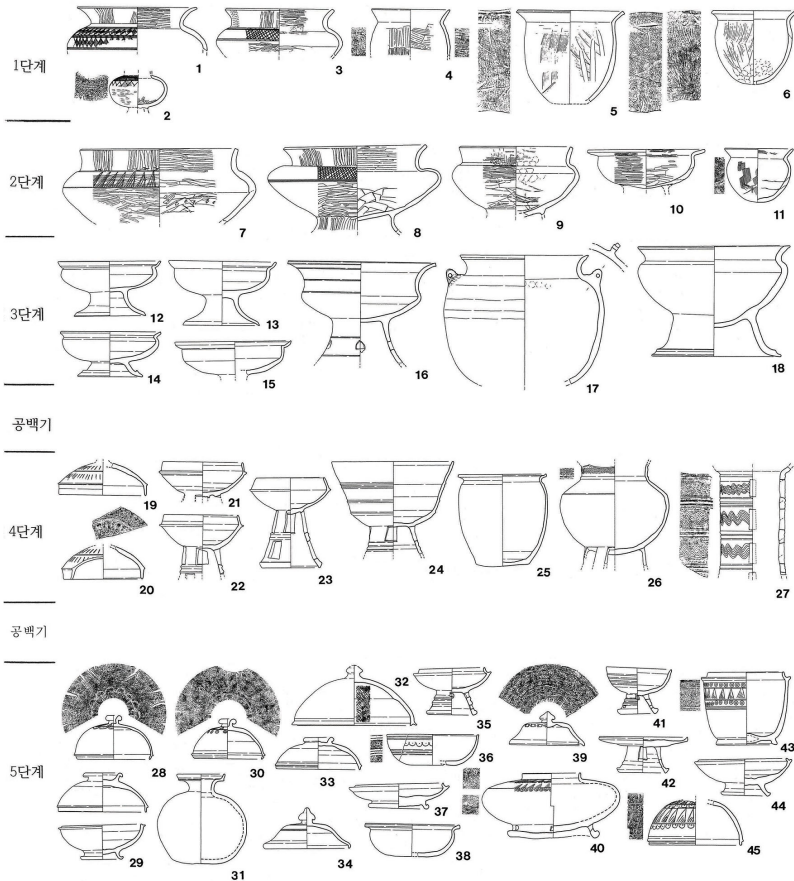
1단계는 능형문·삼각거치문이 시문된 와질 노형토기, 평행타날 와질 단경호, 격자 또는 평행타날된 완과 우각형파수부완, 와질 시루, 외면과 내면에 목리빗질이 되었거나 타날 후 빗질이 된 연질의 소·중·대형옹 등의 토기들이 해당된다. 이 단계의 유구로는 2지구의 1기 대·소형 목주유구, 작업지, 1·2호 공방지, 1호 수혈, 1~6호 소성유구, 혼토파각층 등이 해당한다. 평행타날된 와질 원저단경호와 격자타날된 와질대옹이 출토된 1지구의 1호 수혈도 1단계에 해당된다. 1지구의 굴립주건물지들과 수혈은 중복된 사례로 볼 때, 일부는 1단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지만,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1단계의 시기는 3세기 후반이다.

2단계의 자료로는 사격자문·중선문이 시문된 와질노형토기, 연질의 소·중·대형옹, 도질 소문원저단경호·양이부단경호·승석문양이부단경호·평저완·양뉴부대호·하지키계 토기(옹·고배) 등이 해당된다. 2지구의 II 층에는 상기의 토기들과 함께 칠기·목기·목제품(건축부재·미완성품)·목재·골각기·골제도자와 도자병·골촉·복골 등이 상당 수량 출토되었다.

위의 특징들을 보이는 토기들이 출토된 유구들로는 1지구의 13호 수혈, 2지구의 II 기 대·소형 목주유구, 1·2호 공방지, 7~18호 소성유구 등이 있다. 1지구의 굴립주건물지 일부와 수혈 일부도 이 2단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5지구의 굴립주건물지에서 특정 시기를 나타내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으나 발굴조사 시, 통

8) 여기서 도질토기가 출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보고서에 보고된 유물에 한정된다.

일신라 층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고상창고로서의 기능을 고려하면, 이 2 단계부터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2단계의 중심 시기는 4세기 전반에 해당한다.



〈그림 2〉 1~5단계 구분

I 기 수습(1·3·8), II기 수습(5·6·7·9·10·17·27), 삼국 수혈1호(11·14·16), 삼국 수혈 3호 (18), 배수로 저부(12·13·15·41), 구상유구 3호(19·20·24·25·38·39), 구상유구 1호 (22·23·42), 구상유구 2호(28~35·40·42), 도로(21), 우물 1호(36·37), 원지 1차(44·45)

3단계의 자료로는 도질 양이부원저단경호·노형토기·승문타날단경호·평행타날단경호·뚜껑·외절구연고배·컵형토기·통형기대·대호·와질 격자타날단경호·양뉴부격자타날단경호·시루·연질 소형옹·대형옹 등이 해당된다. 어깨에 암문이나 마연된 와질 노형토기는 확인되지 않고, 도질의 발형기대도 확인되지 않았다. 도질 노형토기·컵형토기·통형기대·외절구연고배·광구소호 등 도질제 기종이 많아진 점들은 앞의 1·2단계의 토기 양상과 다르므로 단계 구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배심이 깊고, 외절구연 길이가 길고, 대각이 장각화된 외절구연고배도 확인된다.

이 3단계에 해당하는 유구들은 4지구의 구상 유구에 의해 부분적으로 파괴된 삼국시대 수혈 1·2·2-1·3·4·5·6·7·11·14·15·19호, 소형 수혈 4, 2지구 II기층 수습 유물, 3지구의 배수로 하층 습지 등이 있다. 3지구의 배수로 하층에는 목제 용기·안, 미완성 목제 농기구, 건축부재 등이 공반되었다. 3지구의 배수로 하층에서 출토된 토기에는 노형토기 등의 와질토기들이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장각화된 도질의 외절구연고배·컵형토기·통형기대 등이 출토되어 2지구의 습지와 사용 시기에 차이가 있다. 이 3단계는 토기의 조성특징 등에 의해 그 중심 시기는 4세기 후반~5세기 초에 해당한다.

4단계의 자료로는 즐묘문이 시문된 뚜껑, 상하엇갈림 장방형 투창고배·대부완·발형기대·통부에 파상문이 시문된 통형기대·대부장경호·대부(파수부)완·소문의 연질평저옹 등이 있다. 위의 토기들이 출토된 유구로는 4지구의 삼국시대 구상 유구 1·3호, 3지구의 배수로 하층 습지 등이다. 이 4단계의 토기군들은 경주 황남대총 출토품보다 늦은 특징으로서 그 시기는 5세기 후반에 해당한다.

5단계의 자료로는 이등변삼각형의 그은 삼각집선문+콤파스 반원점문이 시문된 뚜껑, 짝은 삼각집선문+ 짝은 이중원문(또는 반원점문)이 시문된 뚜껑, 삿갓모양 뚜껑, 대각단이 둥근 단각의 1단 방형 투공고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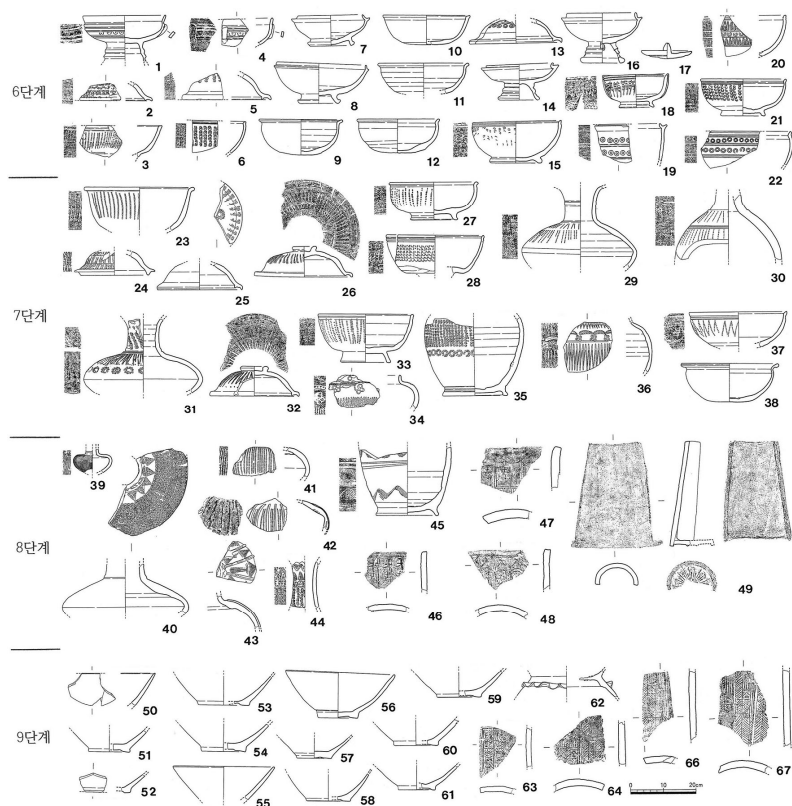
무투창고배·편구병·잔탁·굽이 달린 유개식완, 평저 구형병·연질완·부가 구연장경호·연질옹·파수부연질동이 등이 있다. 이 5단계의 토기가 출토된 유구로는 4지구의 구상 유구 2·3호, 우물 1호 등이 있고,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3지구의 배수로 하부 출토품도 일부 포함된다. 5단계에 해당하는 일부 토기에 “甲” “甲火” “○○○甲” 등의 예새 명문이 되었다. 이 토기군들의 기종 구성과 각 기종의 형식·문양 등은 신라 후기 양식 토기의 Ⅲ양식의 F형식에서 IV양식의 H형식에 해당하며, 그 시기는 6세기 4/4분기에서 7세기 2/4분기이다(홍보식 2003, 91~93쪽).

6단계의 자료로는 3치 또는 5치의 연속마제형문이 시문된 뚜껑, 수적형문+반원점문이 시문된 편구병, 대각에 두툼한 돌대가 있는 고배, 몸통에서 15° 내외로 꺾여 수평에 가까운 구연의 연질완 등이 있다. 이 토기군들은 연속마제형문 또는 수적형문의 인화문 구성, 내구연이 뚜렷한 뚜껑, 대각의 두툼한 돌대 등의 요소들은 통일양식 토기에 해당되며, 그 시기는 7세기 후반이다. 이곳에서 출토된 토기들에는 8세기 전반의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 그 시기는 8세기 전반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 단계 유물이 출토된 유구로는 4지구의 자갈이 깔린 포장 도로, 구상 유구 3, 통일신라 건물지 1, 보도, 우물 3호, 3지구의 원지 1차, 52호 굴립주건물지 등이 있다.

7단계의 자료로는 일조직선의 점열문 또는 지그재그점열문 뚜껑과 합·편구병, 연주문+지그재그점열문이 시문된 호 또는 병, 지그재그점열문+연주문+화문+지그재그점열문이 시문된 호 또는 병, 연질완 등의 토기류와 선문타날된 평기와 등이다. 위의 토기들에 시문된 문양은 모두 인화기법에 의한 것이다. 이 7단계의 토기들은 기종 구성과 형태, 인화문의 구성과 시문기법 등을 고려하면, 그 시기는 8세기 중엽부터 9세기 초까지이다. 이 단계에 해당되는 유구로는 4지구 구상 유구 3, 자갈 깔린 포장 도로, 통일신라건물지 1·2호, 수혈 15·20·21·22, 5지구 우물 2·3

호, 3지구 2차 원지 등이 있다.

8단계의 자료로는 지그재그점열문이 시문되고 내구연이 희미하게 있거나 사라진 뚜껑·주름무늬병·초문이 시문된 병·사면편호·일면편병 등의 토기와 연화문수막새, 평행타날된 암키와와 수키와 등이 해당된



〈그림 3〉 6~10단계 구분

도로(1~8·10·11·23~25), 통일신라 건물지 1호(9·12·34~36·45), 통일신라 건물지 2호(30), 원지 1차(13·21), 원지 2차(14·16·26), 통일신라 수혈건물지(42), 통일신라 수혈 1호(15·49), 1호 우물(17·18·38), 우물 2호(37), 보도(19·20·22·32·40·41), 구상유구 3호(27~29·31), 통일신라 기와가마 2호(47·48), 고려 기와가마 1호(64·65), 지표(39·43·44·53~62)

다. 내구연이 사라진 뚜껑·주름무늬병·사면편호 등의 기종과 형태는 9세기 전반 이후 통일신라 토기의 특징이다. 평기와의 등판 선조문은 중판타날이 대부분이고, 격자타날된 암키와도 일부 혼재해 있다. 수막새는 단판연화문으로 주연부에 연주문이 없고, 화판부는 8엽의 꽃잎과 사이의 역삼각형 간엽이 도드라져 있다. 꽃잎 중앙에는 능선이 있으며, 각 꽃잎에 두 개씩 자엽이 표현되어 있다. 꽃잎 끝은 뭉턱하게 처리되었고, 간엽은 서로 연결되어 꽃잎을 감싸고 있다. 자방부에는 원권이 없고, 1+5과의 연자가 배치되었다. 이와 같은 특징의 수막새는 4지구의 건물지1·보도·석열·담장·축대 1·2·수혈건물지 등에서 출토되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식의 수막새는 9세기에 유행하였다. 따라서 이 8단계의 시기는 9세기 전반부터 10세기 전반까지 지속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단계에 해당되는 유구로는 4지구의 통일신라건물지 1, 석열·담장·보도·석열·축대 1·2·수혈건물지, 3지구의 우물 1호, 5지구의 우물 2·5호와 통일신라 기와 가마 1·2호 등이다. 4지구의 축대 출토 암키와 등면에 “大寺”명이 확인되었는데, 이와 동일한 명문은 기와가마 2호에서도 출토되어 같은 시기에 조영된 유구임을 나타낸다.

9단계의 자료로는 수혈건물지와 삼가마 1·2호에서 출토된 햇무리굽 청자완으로서 굽 접지면 너비가 1.2cm·1.5cm이고, 내측이 들리며, 녹색 유를 전면 시유한 점에서 동일하다. 이와 같은 특징의 햇무리굽완은 지표면과 교란토에서도 20여점 출토되었다. 그리고 수혈 10호, 기와가마 1·2·4·5호 출토 평기와 등면에 “全”자 명이 각인된 사례가 확인되었고, 타날판은 모두 장판이고, 사선문과 종선문으로 구성된 복합문이 주류를 이룬다. 이 점들을 고려하면, 5기의 가마는 조업에 큰 시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고려시기의 수혈·수혈건물지·삼가마·기와가마는 같은 시기에 조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에서 출토된 햇무리굽청자완은

굽접지면 폭이 1.0cm 내외로 넓고 유색이 녹색인 점 등은 10세기 말 이후 조업한 강진 일대에서 생산된 햇무리굽청자완과 유사하여 그 시기는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전반으로 편년된다.

2. 수공업 생산 유구 구성과 생산 품목의 변화

1) 목기·철기·골각기 생산(1단계)⁹⁾

고촌리 유적은 기원후 3세기 후반부터 11세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시기마다 조성된 유구와 유물의 성격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각 시기별 운영 특징을 검토한다.

3세기 후반(1단계)의 유구는 1지구와 2지구에서만 확인되어 생산활동의 주공간이 안평천의 습지와 주변의 충적지가 그 대상이었다. 습지에는 생산시설이, 충적대지에는 저장시설이 배치되었다.

천변과 습지인 2구간은 물품을 완성하기 위한 생산행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작업지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작업지 범위는 동·서 5~10m, 남·북 30m이고, 내부에서 도끼자루·안 부속구·팽이·쌍날따비·건축부재 등과 용도미상의 미완성품들이 다량 검출되었다. 작업지 중앙부에서는 끝만 뾰족하게 가공된 것, 전체가 가공된 것 등 총 40여점의 목재가 한곳에 더미 채 확인되었다. 또한 완성 녹각 도자병과 미완성 상태의 녹각 도자병 상당 수와 골촉·골침·복골·각골 등도 많은 수량이 검출되었다. 동물유체로는 사슴과 멧돼지의 두개골 비율이 높는데, 두개골에서 절개흔과 해체흔의 빈도가 높다. 작업지에서 미완성 목기와 목재, 골각기 등의 비율이 높은 점은 이곳에서 목재 가공과 목기 제작, 짐승의 세부적인 해체 및 골각기 제작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그

9) 고촌리 유적이 수공업 생산을 전문으로 한 집단이었을 가능성은 고촌리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고찰에서 이미 언급되었다.(권종호 2010, 432~465쪽)

리고 대·소형의 목주열이 설치된 것은 작업지가 천변이어서 범람의 우려로부터 원자재 또는 제작중인 물품들이 떠내려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작업 공간을 구분하는 경계시설(또는 작업공간 구분)일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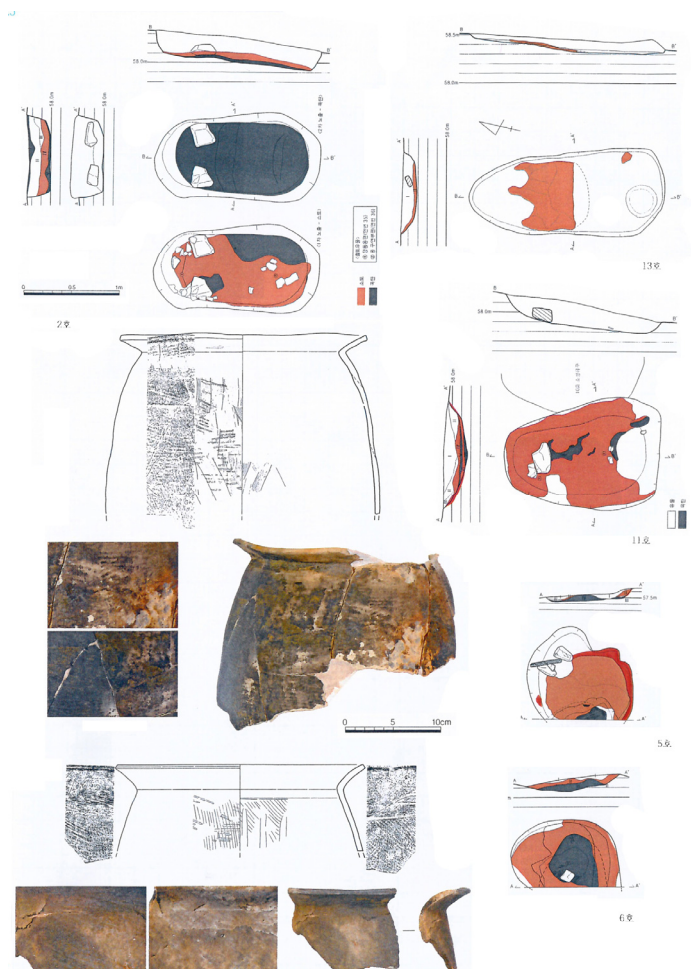
수분 함유도가 높은 천변을 작업지로 이용한 것은 원재료에 수분이 스며들면 가공하기 용이한 특성을 감안하였거나 제작 과정에서 물을 빈번하게 이용할 필요성과 제작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의 폐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장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천변 경사지에 배치된 소성 유구는 칠을 정제하기 위한 시설로서 천변이 습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정제칠을 끓이기에 천변이 가장 적합한 공간이었을 것이다(홍보식 2019, 232~233쪽). 이곳에서 칠을 생산한 것은 칠기가 제작되었음을 나타내는데, 2기층에서 많은 수의 칠기가 출토되기도 하였다. 습지와 그 주변에는 농기구나 건축부재·생활용기·골각기·가죽 등을 제작하고, 일부 목기와 가죽제품을 대상으로 칠을 발라 목태칠기와 혁태칠기 등을 생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에서 확인된 굴립주건물지군은 습지로부터 다소 이격된 약간 높은 평지에 2개의 군을 이루고 있는 배치 형태이다. 굴립주건물지는 바닥면이 지면보다 높은 지점에 조성되었는데, 이는 물품의 건조상태(습기 방지·통풍·환기·방충)가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주로 목기·칠기·골각기의 원료·중간품·완성품 등의 보관을 위한 시설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천변으로부터 떨어진 평탄대지에는 원재료·중간품·완성품 등을 보관하고, 원재료의 1차 가공(목재용 나무의 수피 제거나 포획한 동물의 1차적 해체 등)을 행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고촌리 유적의 조사 범위가 일부에 한정되어 생산지 전모가 밝혀지지 않아 한계는 있지만,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 특히 토기들은 그 시기가 3세기 후반인 점을 고려하면, 고촌 취락민들은 3세기 후반부터 이곳

에서 목기·칠기·골각기·피혁제품 등의 물품을 생산한 수공업 전문 집단으로 출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영강의 지천인 안평천변에 고촌집단이 3세기 후반에 수공업 전문 집단으로서 출발한 것은 당시 수영강수계의 지배집단인 낙민동-북천동유적 조영집단이 수영강수계를 관장하



〈그림 4〉 고촌리 유적 1·2단계 칠 소성유구와 출토 토기

는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그 예하에 편재되어 수공업품을 공급하는 역할로부터 출발하였을 것이다.

이 1단계의 고촌리 유적은 물기가 있는 천변에 칠을 정제 소성하기 위한 소성 유구와 작업지, 혼토파층 등이 배치되었고, 이곳으로부터 서쪽으로 80~160m 가량 떨어진 구릉의 평탄대지에 물품 저장 기능의 굴립주진물과 수혈이 배치된 경관이었다.

2지구 1기 문화층의 시설 운영이 종료된 원인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범람에 의한 작업지의 매몰 또는 황폐화에 기인하였거나 수공업 생산 공간의 확장과 이에 따른 새로운 수공업품의 생산을 위한 시설들을 배치하기 위한 리뉴얼이 이루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후자에 기인한다면, 1단계의 작업지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또 제품들이 그대로 방치되지 않았을 것이다.¹⁰⁾ 그리고 이 2지구의 토층에서 I 기 문화층 위에 다량의 하상퇴적물층이 확인되어 대규모 범람에 의해 1단계의 시설들과 공간이 폐기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는 1단계에서 2단계로의 전환에 시기 차이가 거의 없는 점도 범람이 1단계의 활동 종료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음을 나타낸다.

2) 목기·칠기·골각기 생산의 절정(2단계)

4세기 전반부터 고촌취락에 도질토기들이 사용되었고, 천변의 활용도가 앞 시기에 비해 훨씬 높아진 모습이다. 1단계에 작업지로 사용된 2지구에는 1단계보다 목주 유구 수가 늘어났고, 독립된 공방지도 존재한다. 또한 앞 단계에 작업지 동쪽 천변에 조성된 칠 제조 소성유구가 서쪽의 천변으로 이동하고 그 수도 10기로 늘어났다. 이는 1단계보다 정

10) 작업지에서 검출된 각종 물품들을 폐기하고, 그 위에 성토하여 새로운 작업공간을 만들고 시설물을 배치하는 차원에서 I 기문화층을 매몰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림 5〉 고촌리유적 1·2단계 출토 칠기

제칠 조제와 칠기 생산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천변의 활용 공간이 2지구의 동쪽인 3지구로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3지구의 배수시설이 설치된 하층에서 많은 수량의 목기 및 목제품과 함께 토기들이 출토된 점은 이를 나타낸다.

뚜껑·완·합·사각·방형 등의 목제 용기와 빗, 안과 부속구, 절구와 공

이·결이용 갈고리·바디 등의 생활 목기, 낫자루·파비 미완성품 또는 파손품·고무래 등의 농구, 건축부재와 용도를 알 수 없는 다수의 목기, 할대, 가공중 또는 파손품·완성 단계품 등의 목재가 상당 수량 검출되었다. 그리고 흑칠침저완·흑적칠고배(6점) 등의 목태칠기와 흑칠화살통의 흑태칠기 등의 칠제품도 검출되었다(그림 5).

매립지 내에 수피가 포함된 층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점으로 볼 때, 나무 가공이 이 집단에서 상당히 중요한 생산행위의 하나였음을 나타낸다. 수피는 부식하기 쉬운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하나의 층을 이루고 있음은 다량의 목재(또는 이와 관련한 목태칠기도 포함)를 가공 생산하였음을 보여주는 주요한 근거의 하나이다. 이 2지구에서 출토된 목기 모두가 이 집단에서 사용하기 위해 생산중이었거나 사용하다 버린 것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많은 점이다. 또한 목태칠기와 흑태칠기·남태칠기 등 다양한 재질의 칠기가 출토된 점은 칠기 생산이 이 집단의 주요한 생산활동의 한 부분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2지구에서만 완성·미완성 상태의 도자병이 55점(보고된 것만) 검출되었고, 골각기는 10점, 복골은 13점 출토되었다. 한 공간에서 55점의 도자병이 검출된 것은 고촌 집단이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는 지나치게 그 숫자가 많다. 조사가 되지 않은 공간이 더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생산된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복골은 13점 중 10점에 사용흔이 확인되었고, 나머지 2점은 사용 부위가 결실되어 불확실하다. 복골 10점에 사용흔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나머지 3점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볼 때 복골은 고촌 집단이 사용하고 폐기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수골들이 다수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이곳에서 생산된 복골 중 일부는 다른 복수의 집단에 공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2단계는 1단계부터 생산한 목기와 칠기·골각기 등의 생산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생산량이 더욱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직 등의 분야가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단계보다 목기·골각기 등의 수공업품 생산수량이 더욱 증가되고 여기에 방직생산을 추가하여 수공업 생산 범위의 확장과 분야를 넓힌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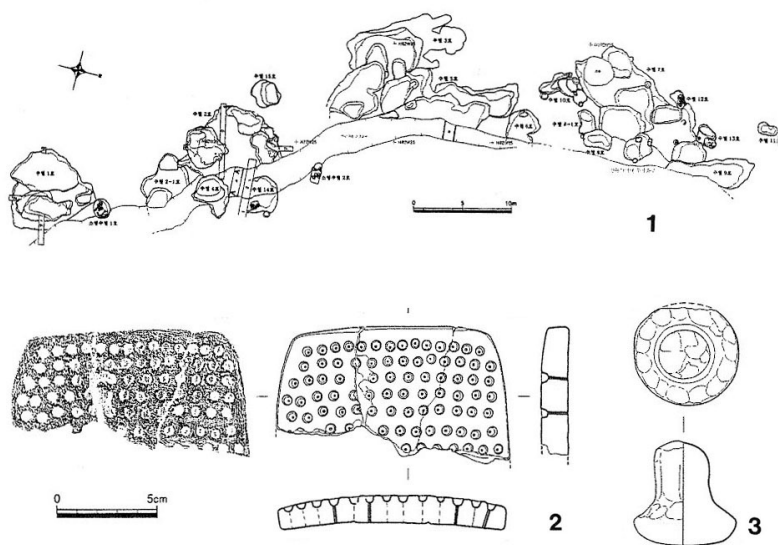
기왕의 수공업품 생산수량이 증가하고, 새로운 품목이 추가됨으로서 원자재와 중간품, 완성품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보다 넓은 공간과 저장 시설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1단계의 저장공간과 시설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반대쪽인 동편에 새로운 공간과 저장시설의 확장과 증설을 한 결과 새로운 대규모의 보관 및 저장 창고군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지구로부터 동북쪽 방향으로 200m~300여m 가량 떨어진 평탄대지인 5지구에 40여동 이상의 고상 창고군이 배치된 점은 이를 나타낸다. 이곳의 굴립주건물지는 건물지간에 중첩되어 있고, 개별 동 수가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물지군 내에서도 시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의 굴립주건물지는 평면형태와 규모가 매우 다양하다. 이는 원자재와 생산품의 종류별, 과정별 단계의 것을 보관하기 위해 적절한 규모의 창고들을 설치해서 운영하였음을 나타낸다. 1단계보다 지형 개발과 활용 공간이 동쪽과 북쪽으로 확장되었음을 나타낸다.

고촌리 생산유적으로부터 서쪽방향으로 400m 정도 이격된 곳에 고촌리 고분군이 위치한다. 고촌리 고분군은 극히 일부만 조사되어 고분군과 개별 고분, 그리고 고분군의 변화 양상 등의 파악은 현재 어렵지만, 그동안 이루어진 지표조사와 채집된 유물 등에 의하면, 철기가 부장된 유력층의 매장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철기는 방부·방습은 물론 아름다움까지 갖추어 당시 고급용기로서 고대사회 지배층들의 전유물이었다. 지배층들이 사용한 철기들이 유력 수장층의 매장시설이 존재하지 않은 고촌리 유적에서 다수 출토되었는데, 이는 고촌집단들이 사용하기 위해 생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목기·칠기 생산 쇠퇴와 토기 생산(3단계)

3단계인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가 되면, 2지구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목가·목재 및 칠기·골각기 생산이 점점 쇠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지구 II기 문화층에서 3단계의 유물 수량이 매우 적은 점에서 그러하다. 다만 3지구의 습지에서는 목가·목재와 함께 이 단계의 토기들이 공반되어 목기 생산이 부분적으로 지속되었음을 보여준다.

4지구의 경사면에 상당히 많은 부정형의 채토장이 조성되었다. 이곳을 채토장으로 개발한 것은 토기를 생산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이는 6호 수혈에서 출토된 토제 내박자의 존재를 통해 어느 정도 추정된다. 그리고 채토 수혈에서 출토된 토기의 구성과 특징들에서 큰 시기 차이가 확인되지 않고, 시기 폭도 짧다. 이 채토장과 내박자의 존재는 토기 생산 수공업이 이 단계에 추가되었음을 나타낸다. 3단계에 다양한 종류



〈그림 6〉 4지구의 수혈과 출토 유물

수혈 유구 배치도(1), 유리용범(2, 수혈유구 3호), 내박자(3, 수혈유구 6호)

의 도질토기들이 상당수 출토된 점도 토기생산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그리고 수혈 3호에서 토제유리범 편이 출토되었다. 이 토제유리범은 원삼국시대부터 삼국시대에 걸쳐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사례가 있는데, 사용중 파손된 유리편들을 녹여 2차 가공품을 생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단계에 진입하면서 목기와 목재, 골각기 생산이 쇠퇴하고, 새로운 수공업 분야로서 토기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생산 분야의 전환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촌리집단의 성격이 바뀌었다기보다 생산품의 내용과 구성원들의 노동 형태가 바뀌었고, 수공업을 생산하는 집단의 성격은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이 가능성은 향후 이 일대에서 직접적인 토기생산 활동을 나타내는 공방지와 토기가마의 존재에 대한 발굴조사를 기대해 본다.

4) 제1공백기

고촌리 유적의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토기 구성에 공백기가 존재한다. 이 공백기는 어디까지나 2회의 발굴조사 내용에 국한된다. 제1공백기는 외절구연고배 소멸에서 황남대총 남분 조영 사이의 특징을 보이는 토기군이 확인되지 않았다. 부산 북천동고분군의 출토품과 비교하면, 11-10·8-9·53호분에 이르는 5세기 2/4분기의 토기상이 고촌리 유적의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5세기 후반의 유물들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고촌집단이 사라진 것이라기보다 이 시기의 생산활동이 주변의 다른 공간으로 옮겨가면서 생산 분야의 변경과 변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의 발굴조사에서 이 시기의 존부 및 수공업 분야의 내용과 구조, 주 활동공간이 확인되길 기대한다.

공백기인 이 시기는 수영강수계의 최고지배층 묘역이 북천동고분군에서 수영강 남쪽의 연산동고분군으로 이동된 것과 부합된다. 새로운 지배층 묘역인 연산동고분군에는 고총고분이 조영되고, 신라 중앙의 문

화요소가 많이 수용되는 등 부산지역의 정치와 문화에 변동이 전개된 시기이다. 이러한 수영강수계에서의 정치·문화적인 변동에 연동해 수공업 생산을 전담하던 고촌집단의 구조와 수공업 생산품에서도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구조 개편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5) 인공도로 개설과 물류 운송(4단계)

4단계의 수공업 생산활동을 직접 나타내는 유구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4지구의 삼국시대 구상 유구 1호는 잔존 길이가 53.4m에 이르고, 단면이 ‘U’ 또는 ‘L’인 점, 생토층을 굴착하고, 지면이 생토층인 점 등을 고려하면, 도로 유구로 판단된다. 도로가 남쪽에서 저장공간인 동쪽 방향으로 개설된 점은 이곳에서 생산된 물품들과 원재료들을 반입, 반출하기 위한 새로운 운송체계와 시설이 갖추어졌음을 나타낸다. 이는 원료와 가공품을 보다 효율적이고 대량으로 운송하기 위한 차원일 가능성이 있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시설과 공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1~3단계에 비해 물품 생산이 증가되었거나 생산품목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지면을 굴착해서 도로를 개설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 부문도 향후의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6) 제2공백기

제2공백기는 천마총·서봉총~보문동 합장분의 시기에 해당하는 6세기 1/4분기에서 3/4분기로 이 시기의 자료들이 확인되지 않았다.¹¹⁾ 이 공백기가 발굴조사의 한정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고촌리

11) 4지구의 수혈 18호와 19호에서 대각단 끝이 반전하듯이 들려 단면이 삼각형인 고배가 출토되었다. 이러한 대각단의 특징은 신라 후기 양식 토기 E형식에 해당하며, 그 시기는 6세기 3/4분기이다. 이 2기의 수혈 존재로 볼 때, 이 시기의 유구들이 미발굴 지역에 분포할 가능성이 있다.

유적의 영위가 일시 중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발굴조사의 진전을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유보한다.¹²⁾

7) 갑화(양곡)로의 개편과 수공업 생산(5단계)

1단계부터 3단계에 집중적인 생산공간으로 활용된 1·2지구에는 이 단계의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5단계에 1·2단계의 주요 생산 시설이 집중된 하천변이 더 이상 생산공간으로 활용되지 않았고, 이는 하천변의 습지와 그 주위에서 이루어지던 물품 생산이 중단되었거나 다른 지점으로 이동했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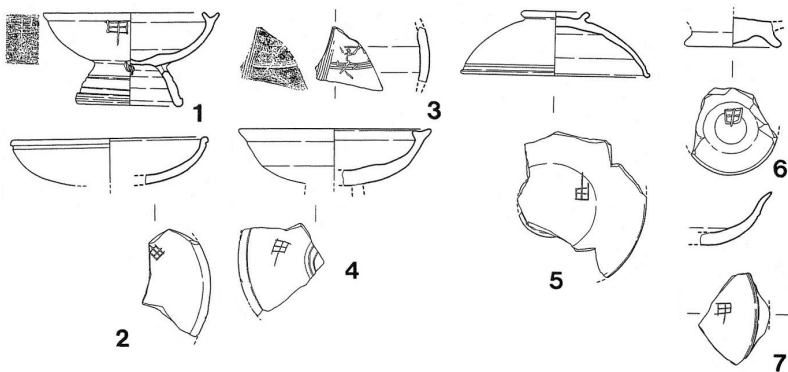
도로는 4단계와 동일한 방향인 서남에서 동북으로 향해 구릉 사면과 평탄지가 연결되는 지점을 따라 지면을 굴착해서 만들었다. 도로 유구 2호에서 출토된 토기들의 기종 구성과 개별 기종의 특징, 문양 형태와 배치 등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이전인 7세기 전반의 특징들이다. 도로유구 3호에서 출토된 토기들은 도로유구 2호 출토 토기와 같은 형식의 것들과 8세기 전반 등 두 시기의 토기들이 포함되었다. 이 도로유구 3호는 7세기 전반 이후 조성되었고, 8세기 후반 이후에도 매몰되지 않고, 개방된 상태였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도로유구 2호와 3호는 7세기 전반에 조성된 서로 연결된 동일 도로였음을 나타낸다.

이 5단계인 7세기 전반에 고촌리 유적에 동-서로 이어진 도로가 조성되고, 정확한 기능을 판단하기 어려운 구상 유구와 우물, 연못이 조성되는 등 7세기 신라 왕경 주변부 집단의 생활문화요소들이 이곳 고촌취락에도 부분적으로 반영된 모습이다. 이 시기의 직접적인 생산활동을 나타내는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도로가 개설된 점은 사람과 물자의

12) 생산 또는 생활 유구의 발굴조사가 여의치 않으면, 유적 인근에 위치한, 고촌집단들이 조영한 고촌고분군의 발굴조사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고촌리 고분군의 추가적인 발굴조사가 요구된다.

왕래가 앞 시기보다 활발해졌음을 보여주는 사실이다. 따라서 도로를 통해 공급해야 할 수공업품이 생산되었거나 생산물품의 증가와 공급에 소요되는 시간 감축 등의 가능성도 고려해볼 만하다. 그리고 구상 유구 2호에서는 녹색의 연유도기 뚜껑과 대부직구호가 출토되었다. 이 시기의 연유도기는 왕경의 가옥들과 지방에 조영된 극히 소수의 매장시설에서 출토되는 희소품이다. 이런 희소품과 도로, 석조우물 등이 조성된 점은 이 시기 고촌취락의 중요성 또는 위상이 높아졌음을 나타낸다.

고촌집단은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동래군의 영현인 기장현에 편재되었다. 종래 수영강수계권에 속하였던 고촌지역은 경덕왕대인 8세기 중엽에 지방제도가 개편되기 이전부터 기장권으로 재편되었음을 나타내는 자료가 구상 유구 3호, 도로 출토 호의 “甲火”와 3지구의 1차 원지와 지표에서 출토된 토기에 새겨진 “甲”이다. “甲火” “甲” 명문 토기들의 시기는 7세기 전반이다. 경덕왕대 지명 개편이 실시되기 1세기 전에 해당한다. 이미 7세기 전반의 토기에 “甲火” “甲”이 새겨진 점은 중요하다. 이 “甲火” “甲”은 경덕왕대의 지명 개명 이전의 갑화양곡현의 甲火



〈그림 7〉 “甲” “甲火” 명 토기

원지 1차(1), 구상유구 3호(3), 도로(2), 지표(4~7)

에 해당하며, 7세기 전반에 이미 이 지역이 갑화양곡이란 지명으로 불리었음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8) 포장도로 개설과 동해통의 경유(6단계)

6세기 후반에 조성된 도로 위에 점토를 깔고 그 위에 자갈을 놓은 자갈 포장 도로가 원지에서 북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꺾여 조사구역의 동쪽 끝을 지나 조사 범위 바깥으로도 이어진다. 이 자갈 포장 도로가 지나가는 곳은 반송에서 기장으로 이어지는 반송로가 개설되기 이전까지 동래에서 기장으로 이어진 도로구간과 거의 일치한다. 이 도로는 신라 왕경에서 동해를 따라 내려오다 동래로 이어지는 동해통 노선의 한 부분에 해당된다. 7세기 후반 이후 고촌리 유적에 동해통이 지나가면서 이 고촌취락에는 축대가 설치되고, 적심과 초석이 있는 기와건물이 세워지고, 자갈을 깔 보도와 담장 등의 주거시설과 석조 우물 등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안평천 가까이에 위치한 1차 원지의 형태를 바꾸어 호안석축을 부분적으로 곡선으로 처리하여 조경미를 살렸고, 가까이에 누각을 설치하였다. 3지구의 52호 굴립주건물지는 조사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습지를 메운 곳에 위치하고, 가장자리 사방에 석축을 하였다. 기둥 직경이 40cm로 고촌유적에서 확인된 50여기의 굴립주건물지 기둥보다 직경이 배 이상이다. 이 52호 굴립주건물지는 원지를 조망할 수 있는 누각이거나 전망대 또는 원지에 사용할 물품들을 임시 보관하는 시설일 가능성이 있다. 가까이에 위치한 우물들은 원지에서의 생활과 관련된 식수 시설로 추정된다.

자갈 포장 도로와 적심부가 있는 와즙건물지, 정원으로 보이는 연지와 누각 등의 존재는 고촌리 유적이 위치한 곳이 고대 전제왕권의 지배를 받는 지방의 주요 지점으로 존재했음을 나타낸다.

9) 갑화양곡의 발전(7단계)

7단계에 조성된 각종 도로 등의 기반시설과 가옥들이 지속되었고, 수공업생산을 나타내는 시설들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 단계에 조성된 도로와 가옥들이 지속되었음은 앞 단계의 상황에서 큰 변화가 없었음을 나타낸다. 다만 이 시기의 특징적인 시설로는 우물의 추가 조성이다. 5지구에는 우물 4기가 확인되었는데, 이 단계에 조성되었다. 우물의 추가 조성 이면에는 거주민들의 수가 증가되었음을 나타낸다. 거주민의 수 증가는 물품 생산과 공급에 종사하는 거주민의 수가 증가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자료로도 볼 수 있다.

10) 기와 생산으로의 전환(8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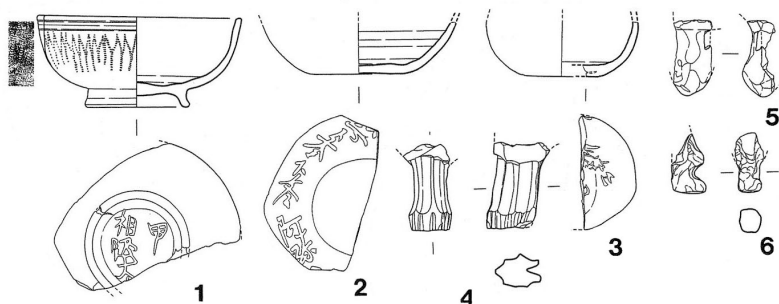
8단계의 시설들은 4·5지구, 즉 습지를 이루는 안평천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둔 북쪽의 구릉 사면부에서 평탄지로 연결된 지형에 집중되었다. 이 중에는 6단계에 존재한 시설도 있는데, 자갈 포장 도로, 건물지 1·2호, 3지구의 2차 원지와 우물 1호 등이다. 7단계의 시설에 석열과 담장·보도 등이 건물지 주위에 추가 보완되었다. 그리고 새로 기와가마 2기의 존재가 두드러진다. 이 기와가마는 통일신라 말인 9세기에서 10세기 전반에 고촌취락의 새로운 수공업 생산활동을 나타낸다. 기와생산을 위해 가까이의 구릉지를 대상으로 흙을 채취하였는데, 그제 인근에 분포한 부정형의 수혈들이다.

통일신라 건물지 1호와 축대 1·2호, 담장·석열·보도·수혈·건물지 등에서 연화문수막새가 출토되었고, 석축 2호에서 “大寺”명 암키와가 출토되었다. 또 상기의 유구에서 중판타날된 선문의 평기와, 격자타날된 평기와 등이 출토되었다. 이 단계의 건물과 관련 시설에 기와가 사용되었음을 나타낸다.

2기의 기와가마에서 “大寺”명 암키와가 모두 출토되었고, 등판에 타

날된 문양들이 같거나 유사하여 같은 시기에 동시 조업되었다. 이곳에서 출토된 기와와 동일한 개체들이 이 시기의 시설물에서 출토되어 이곳 기와가마에서 생산된 물품들이 일부 사용되었음을 나타낸다. 이곳에서 생산된 기와들이 큰 절에 공급되었음을 나타낸다. “大寺”명 기와의 존재로 볼 때, 유적 주변 또는 당시 동래군 치소가 위치한 수영강 하류의 현 동래고읍성지 주위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불교사원에 기와를 공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大寺명 기와 외에도 “○○○○阿弥”명 묵서 토기, “祖(또는 相)○○甲”명 묵서 토기가 확인되었다(그림 8). 토기가 파손되고, 표면이 박락되어 묵서의 전체 내용과 글자 파악이 어려우나 확인된 글자에서 불교와의 관련이 높다. 이 불교 관련 묵서는 이 집단 구성원들 중에 불교와 관련된 인물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자 통일신라 말 신라의 지방에 불교가 매우 번창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이다. 주로 왕경인들에게 행해진 토기 묵서가 갑화양곡에서도 이루어진 점은 당시 갑화양곡의 위상 또는 갑화양곡 거주민 중 일부의 위상이 높았거나 식자층이 존재했음을 나타낸다.



〈그림 8〉 묵서토기와 벼루 : 구상유구 3호(1·2), 지표(3~6)

11) 기와 생산의 증가(9단계)

9단계인 고려 초의 수공업 생산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8단계에 이어 기와를 생산하여 자체 내의 소비와 함께 인근의 불교사원과 관아시설로의 공급과 더불어 삼을 찌는 활동의 새로운 수공업 분야가 추가된 점은 주목된다. 고려 초에 있어 기와 소비가 증가되었음은 8단계인 통일신라 말보다 기와 가마의 수가 증가된 점이 이를 나타낸다.

이와 더불어 삼가마 1·2호와 지표에서 십 수점의 국내산 초기청자인 햇무리굽완이 출토되었다. 국내산 햇무리굽 청자완은 대개 고려 초기의 거점 취락이나 관아·불교사원·관방 등에서 출토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단계에 고촌 집단의 구성원들이 고급 용기인 초기 청자를 소비했음은 여전히 그 위상이 높았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8단계의 유구 수와 격에 비춰보면, 상당히 열세인 점은 분명하다. 9단계인 고려 초기에 고촌 취락의 사회적 위계에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을 나타내는 징조일 가능성이 있다.

IV. 맺음말

고촌리 유적을 조영한 집단은 기원 3세기부터 고려 초까지 수공업 물품 생산을 전업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3세기부터 고려 초기까지 고촌집단의 수공업 생산 운영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고촌리 유적의 1·2단계인 3세기 후반부터 4세기 전반까지 안평천의 습지와 평탄대지를 중심으로 목재·목가·칠가·골각기 생산을 위한 공방 시설·소성 시설, 원자재와 중간품·완성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이 배치되었다. 이곳에서 생산된 각종 물품들은 부분적으로 자체 소비와 함

께 당시 수영강수계의 지배집단인 낙민동-북천동고분군 집단에게 공급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인 3단계에는 목기·칠기·골각기 생산이 쇠퇴하고, 토기생산과 유리의 2차 가공 분야가 추가되어 생산기술과 품목의 변화를 꾀하였다. 5세기 중엽의 공백기를 지나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인 4단계에는 수영강 수계의 지배세력인 낙민동-북천동고분군 집단의 매장지가 현 연산동고분군으로의 이동과 연계되어 수공업 생산 분야의 재편과 운송체계 변화의 가능성이 있었다. 이를 나타내는 유구가 안평천 북쪽의 완경사지와 평지가 접하는 곳에 지면을 굴착하여 만든 남-북 방향 도로이었다. 3단계에 해당하는 시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인공도로가 개설된 점은 1~3단계에 비해 물품 생산이 증가되었거나 생산품목의 변화가 이루어져 원재료의 반입과 생산된 물품들을 반출하기 위한 운송체계와 시설이 존재했고, 원료와 가공품을 빠르게 대량으로 운송하기 위한 차원일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6세기 전~후반의 공백기 이후 6세기 말부터 7세기 전반에 해당되는 5단계에도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고, 우물과 원지 등이 조성되었는데, 지금까지 주 수공업 생산장이었던 안평천변의 습지 일대는 생산 공간에서 제외되고,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상징하는 우물과 위락시설로 그 경관이 바뀌기 시작하였고, 갑화(양곡)으로 재편되었다. 7세기 후반 이후, 특히 8세기에는 왕경에서 동래로 이어진 동해통 노선이 지나가면서 고촌리 유적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고, 왕경과 남해 일대를 연결하는 주요 거점지로 부상되었다.

9세기 전반 이후에는 통일신라 말부터 시작된 기와 생산 수량을 더욱 늘려 자체 소비와 주변지역에 공급하였다. 이 기와생산은 고려 초에 더욱 증가되었으나 자체 소비를 나타내는 건물지는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고촌 취락은 물품 생산에 가장 적합한 자연환경이 갖춰진 지형을 선택하고, 물품 생산 관련 시설을 취락 앞쪽에 두고, 완성품의 보관과 운송에 필요한 창고시설과 도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물품 생산과 저장·운송에 특화된 방향으로 토지가 활용된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다.

‘古村’이란 그 이전부터 존재해 있었던 촌락이란 의미이다. 2회에 걸쳐 실시된 발굴조사 성과에 의하면, 고촌리 유적은 기원후 3세기 후반부터 마을을 이루고 본격적인 수공업 생산활동을 영위한 생산전문 집단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부분적인 발굴조사이지만 삼국시대를 거쳐 통일신라와 고려 전기까지 목기·칠기·골각기·토기·유리·방직·기와 등의 수공업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고려 초의 대표적 물질자료인 햇무리굽청자완을 비롯한 고급물품이 이곳에서 소비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고려 전기까지 수공업 생산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한 집단의 사회적 위상이 결코 천민으로 낮은 것은 아님을 나타낸다. 삼국 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수공업 생산을 전문적으로 수행한 취락을 고려 전기에 와서 중앙정부가 부곡으로 편제하여 수공업 생산을 전문적으로 해 온 그 전통성을 인정하여 국가의 수취체제에 편제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기원 3세기 후반부터 고려 초까지 수공업품 생산을 전담한 고촌취락이 고려 전기에 고촌부곡으로 편제된 역사성을 가진 이상, 부곡과 같은 고려시대 특수 목적의 행정 단위로 편제된 역사적 배경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 慶南文化財研究院 『부산 고촌 택발개발사업지구 내 古村遺蹟(Ⅰ地區)』, 2010.
財)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釜山 古村里 生産遺蹟』, 2010.
- 권종호, 「V. 고찰1. 삼한~삼국시대 부산 고촌리 생산유적의 성격」, 『釜山 古村里 生産遺蹟』財)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10.
- 김보숙, 「3. 삼한~삼국시대 부산 고촌리 생산유적 출토 토기 소고」, 『釜山 古村里 生産遺蹟』財)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10.
- 안재호, 「삼한시대 후기 와질토기의 편년」, 『영남고고학』 14, 1994.
- 이성주, 「변·진한지역 분묘 출토 1~4세기 토기의 편년」, 『영남고고학』 24, 1999.
- 李昶燮, 「古代 地方道路와 陸上交通路-燕岐地域을 中心으로-」, 『湖西考古學』 35, 2016.
- 홍보식, 『신라 후기 고분문화 연구』, 춘추각, 2003.
- _____, 「신라 가야 고분 교차편년」, 『嶺南考古學』 70, 2014.
- _____, 「燒成遺構와 精製漆 調製」, 『고대의 빛깔 옷칠』, 국립김해박물관, 특별전시 도록, 2019.
- 홍보식 외, 『통일신라 고고학 개론』, 중앙문화재연구원 엮음, 진인진, 2019.

투고일 : 2022. 05. 23. 심사완료일 : 2022. 06. 24. 게재확정일 : 2022. 07. 14.

| Abstract |

Review of the Stages and Operational Aspects of the
Gochon-ri Ruins in Gijang, Busan

Hong, Bo-Sik

In Gochon village, landscapes specialized for the production, storage, and transportation of goods so that goods production-related facilities and warehouse facilities and roads necessary for storage and transportation of finished goods could be organically connected formed by selecting a terrain equipped with a natural environment suitable for goods production can be identifi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excavation investigations conducted twice, in the case of Gochon ruins, a village was formed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3rd century AD and a production-specialized group that engaged in full-scale handicraft production activities appeared. Thereafter, in partial excavation investigations, it was identified that although there were two periods of inactivity, handicraft items such as wooden containers, lacquer ware, bone implements, earthenware, glass, textiles, and roof tiles were professionally produced here from the epoch of the Three Kingdoms through the period of Unified Silla and to the early Goryeo period. Given that luxury goods such as lead-glazed porcelains and sun halo bottom celadon bowls were consumed, and tiled buildings with foundation stones were erected, the social status of the group that specialized in the production of handicraft products until the early Goryeo period was not at all low. Gochon village could be noticed as a case that enables the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organization of villages specialized in handicraft production from the epoch of the Three

Kingdoms to the period of Unified Silla into the country's receiving system as a special administrative unit, Bugok in the early Goryeo period.

Keywords: Gochon-ri ruins, handicraft production, warehouse facilities, roads, Bugok